■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25-256.
http://doi.org/10.17948/kcs.2020..87.225

일본 메이지시기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日本地誌略』 편찬과 독도 인식

한철호(韓哲昊)*

목 차

1. 머리말
2. 『일본지지략』의 편찬 과정과 독도 인지
3. 『일본지지략』의 오키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4. 『일본지지략』의 수록 지도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오쓰키는 일본 메이지시기 지리학자로서 『日本地誌略』과 『日本地誌要略』을 비롯해 수많은 지리교과서·부도를 편찬하였다. 특히 일본 문부성이 최초로 발행한 『일본지지략』은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일본지리교과서의 기준이 되었던 대표적인 소학교 지리교과서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토대로 오쓰키가 『일본지리략』에서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오쓰키가 문부성 재직 중인 1874년 1월 『일본지지략』 초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참고했던 태정관 정원 지지과의 『일본지지제요』 초고는 출판을 위한 최종 교정본 직전의 초고본이었다. 그는 『일본지지제요』를 참고로 『일본지지략』을 편찬하

*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면서 松島(독도)와 竹島(울릉도)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두 섬을 부속섬 관계로 파악하면서 오키의 소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日本地名字引』에서도 기재하지 않았다.

『일본지지략』에 수록된 '日本國全圖'와 이에 관련된 「山陰道之圖」·「隱岐圖」에도 모두 松島와 竹島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지도에 일본 영토의 변동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에도 두 섬이 제외된 사실은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지도와 본문의 내용을 비교해 살펴보면, 松島와 竹島는 오키의 해양상 위치 혹은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쓰키는 동생 후미히코의 '暗射日本圖(日本全圖暗射)'를 근거로 편찬한 『日本全圖暗射指南譜』에서도 松島와 竹島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가 『大日本沿海實測錄』를 편수하는 과정에서 참고했던 『대일본연해실측록』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서술되지 않았으며, '암사일본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될 공간이 있지만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오쓰키뿐만 아니라 후미히코도 일본 영토의 중요성과 그 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지만, 『일본지지략』을 비롯해 『일본지명자인』과 『일본전도암사지남보』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식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지지략』은 일본 문부성이 개정·발행한 최초의 일본지리교과서였던 사실에 비추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독도(松島), 울릉도(竹島), 오키(隱岐), 오쓰키 슈지(大槻修二),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文部省, 『日本地誌略』, 『日本地誌提要』, 『日本地名字引』, 『日本全圖暗射指南譜』, 『大日本沿海實測錄』.

1. 머리말

오쓰키 슈지(大槻修二, 본명 淸修, 호 뇨덴[如電], 1845-1931)는 明治·大正시대에 地理·地文學者로서 일본의 지명사전과 지리교과서·附圖를 집필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가 초고를 집필한 『日本地誌略』(1874)은 일본 文部省이 최초로 발행한 일본지리교과서이자 그 이후 발행된 일본지리교과서의 기준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 그가 편찬한 『日本地誌要略』(1875)은 대표적인 소학교 상등교과서이자 사범학교 참고서로 사용되었는데, 改正을 거치면서 1889년까지 4판이 간행되었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屬島로 정해졌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외에도 오

쓰키는『標註日本地誌略』등 수많은 지리교과서와 부도를 저술하였다. 따라서 그가『일본지지략』등 일본지리교과서에서 일본 영토 혹은 오키(隱岐)의 범주를 어떻게 서술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일본의 지리교육계뿐만 아니라 문부성의 독도 인식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처럼 오쓰키의『일본지지략』과『일본지지요략』등은 일본지리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고 영향력도 지대했던 만큼,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1]『일본지지략』등을 빼놓고서는 메이지시대 일본지리교과서의 역사와 그 특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기존연구들 가운데 오쓰키의『일본지지략』에서 일본의 영토 혹은 오키의 관할 범주에 관련해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를 어떻게 서술했는가를 고찰한 것은 거의 없고, 단지『일본지지요략』에 관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2]

한편 한국에서도『일본지지략』과『일본지지요략』에 나타난 '松島'와 '竹島'가 일본이나 오키에 속하지 않았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3]『일본지지략』에 초점을 맞춘 글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우선 윤소영은 太政官 正院 地誌課의『日本地

1) 倉澤剛,『小學校の歷史』, 東京: ジャパン ライブラリー ビューロー, 1963; 海後宗臣 編纂,「所收教科書解題」,『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15 地理(1), 東京: 講談社, 1965;「地理教科書總解說」,『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17 地理(3), 東京: 講談社, 1966; 海後宗臣・仲新,『近代日本教科書總說 解說篇』, 東京: 講談社, 1969; 仲新,『明治の教育』, 東京: 至文堂, 1967; 文部省,『學制百年史』,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1972; 中川浩一,『近代地理教育の源流』, 東京: 古今書院, 1978;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近代教科書の變遷—東京書籍七十年史—』,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1980; 川村博忠,「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總合人間科學』第3号, 東亜大學總合人間 文化學部, 2003; 岡田俊裕,『近現代日本地理學思想史—個人史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1992;『日本地理學史論—個人史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2000;『地理學史—人物と論争—』, 東京: 古今書院, 2002;『日本地理學人物事典 近代編1』, 東京: 原書房, 2011; 中山修一,『近・現代日本における地誌と地理教育の展開』, 廣島: 廣島大學總合地誌研究資料センター, 1997; 島津俊之,「明治政府の地誌編纂事業と國民國家形成」,『地理學評論』第75巻 第2号, 日本地理學會, 2002.

2) 下條正男, 實事求是—日韓のトゲ、竹島問題を考える—第22回「朴炳渉氏の「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を駁す(『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號)」, Web竹島問題研究所, 2009.8.7.,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5-d.html(2020.02.05. 검색); 塚本孝,「Q76 江戸時代の文獻では竹島が日本の範圍から除外されているのか.」, 第3期 竹島問題研究會 編,『竹島問題100問100答』WiLL 3月增刊号, 東京: ワック株式會社, 2014, 176-177面.

3) 內藤正中・金柄烈,『史的檢証竹島・獨島』, 東京: 岩波書店, 2007, 181-182面; 유미림・최은석,『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26면; 송휘영,「『죽도문제 100문 100답』의「죽도도해금지령」과「태정관지령」비판」,『독도연구』제16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4, 211면, 214-216면.

誌提要』와 오쓰키의 『일본지지략』 3(1874)·『일본지지요략』 4(1875)·『개정일본지지요략』 5(1886)에 서술된 오키 항목 중 '松島'·'竹島'에 대한 내용을 치밀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지지략』에서 '松島'와 '竹島'는 오키의 부속도서인 '大小 島嶼' 183개와 별도로 기술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오키의 해양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적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일본지지제요』와 이를 근거로 편찬된 『일본지지략』 등은 1877년 太政官指令 전후 일본 정부의 지리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당시 일본 정부가 '松島'와 '竹島'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4] 하지만 그는 『일본지지략』의 수록 지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심정보 역시 『일본지지제요』와 그 계통인 『일본지지략』과 『일본지지요략』 등의 '松島'·'竹島' 내용을 살피면서 『일본지지략』이 『일본지지제요』의 내용 구성을 답습했으며, '松島'와 '竹島'가 여전히 오키국의 도서로 합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문에 수록된 「隱岐圖」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단, 그는 『일본지지략』의 수록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파악했지만, 본문 이외에 실린 지도들이 두 섬의 소속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5]

한철호는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 지리교과서의 독도 인식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일본지지략』이 시마네현 소학교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일본지지제요』를 근거로 작성된 『일본지지략』의 본문에 '松島'와 '竹島'가 서술되었지만, '日本全圖'와 「山陰道之圖」에 두 섬이 제외된 사실을 토대로 오키의 해양상 위치 혹은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 서술되었다고 간단하게 고찰했을 뿐 『일본지지략』의 독도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6]

---

4) 윤소영, 「근대 일본 관찬 지지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6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370-376면, 379면;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 제17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4, 173-174면, 187-188면.

5) 심정보,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의 고찰」, 『독도연구』 제23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7, 437-440면, 445-447면, 451면.

6) 한철호,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小學校) 지리교과서의 현(縣)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제61호, 동북아역사재단, 2018, 301-343면.

이와 같이 한국의 기존연구는 메이지시대 일본지리교과서와 부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오쓰키의 독도 인식에 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다루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우선 오쓰키가 1874년 1월『일본지지략』초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참고했던『일본지지제요』초고는 1874년 12월부터 출판된『일본지지제요』가 아니었음에도, 거의 모두『일본지지제요』5(1878.1)의 '隱岐' 항목을 근거로 독도 인식을 파악하는 우를 범하였다. 또한『일본지지략』에 수록된 지도들을 본문 내용과 비교하면서 오쓰키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는지 여부도 치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아울러『일본지지략』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오쓰키의 다른 저작물과 연관해 독도 인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되 오스트리아 만국박람회에 출품한『日本地誌提要 第一稿』(1873.3., 4책)·『日本全圖暗射指南譜』(1875) 등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토대로,『일본지지략』에 나타난 오쓰키의 독도 인식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쓰키가『일본지지략』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일본지지략』에서 오키 서술 내용과 수록 지도들을 근거로 그가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보겠다. 본고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 주장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길 기대한다.

2.『일본지지략』의 편찬 과정과 독도 인지

오쓰키는 1845년 에도(江戶)에서 태어나 부친에게 家學을 받았고, 막부의 儒官인 하야시가(林家)에 입문해 漢學을 공부했으며 仙台藩校인 養賢堂에서 國學을 배웠다. 그는 메이지유신 후 도쿄(東京)로 가서 1871년 1월 시험을 보고 海軍 兵學寮의 교관이 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1872년 文部省에 근무하면서 교과서 편찬 등에 종사했다가 1874년 봄 관직을 그만두고 1875년 동생인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1847-1928)에게 家督을 넘긴 후 재야학자로

서 저술에 전념하였다. 이후 그는 지리뿐 아니라 역사・음악・복식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日本洋學年表』(1877)[『新撰洋學年表』(1927)]・『驛路通』(1911)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7]

오쓰기의 저서들 가운데 독도와 관련해서는 그가 문부성 재직 중인 1874년에 草稿를 집필했던 소학교용 지리교과서인 『日本地誌略』이 주목할 만하다. 1872년 8월 學制 공포로 근대적인 학교제도가 시행된 후 문부성은 국민의 필수요건 중 하나로 국토 내외의 지리적인 지식에 대한 습득을 중시했는데, 이를 실현한 교과서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師範學校에 의뢰해 교과서를 제작・공급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때 오쓰키는 사범학교로부터 일본지리교과서의 촉탁을 받았지만, 인용할 만한 서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참고해 근거로 삼기('考據')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백방으로 수색한 끝에 太政官 正院 地誌課가 편수해서 "이미 완성되어 있던" 『日本地誌提要』의 '草稿'를 비롯해 문부성 編輯寮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두루 숙독('流覽熟讀')해서 『日本地誌[略]』의 草稿 '9권'을 겨우 편찬할 수 있었다. 당시 그가 참고했던 문부성 편집료의 자료는 1872년 1월 문부성이 각 縣에 '地理誌略'을 편집하기 위해 유명한 산물 2-3개를 조사하라고 명령해 수집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이 책에 들어갈 삽화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모든 '名所圖繪'를 찾아 참고해 완성하였다. 그는 『일본지지략』의 원고료로 10행 20자의 원고 1매당 2円씩을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싼 값은 아니었다고 회고하였다.[8]

『일본지지략』은 1874년 1월 오쓰키의 문부성 상관이었던 다나카(田中義廉)가 「凡例」를 썼던 사실로 미루어, 이때 원고가 완성되거나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9]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일본지지략』은 '1874년 8월 改正'本으로 알려져 있다. 4책으로 구성된 『일본지지략』은

---

7) 岡田俊裕, 「大槻修二」, 앞의 책, 2011, 52-59면.

8) 大槻修二, 「自敍」, 『日本地誌要略』 1, 東京: 大槻修二, 1875, 1面; 「例言三則」, 『改正日本地誌要略』, 東京: 柳原喜兵衛, 1886, 1-2面; 石井研堂, 「小學讀本の編輯者」, 『增補改訂 明治事物起源』 上, 東京: 春陽堂書店, 1966, 526面; 石田龍次郎, 「皇國地誌の編纂—その經緯と思想—」, 『一橋大學研究年報 社會學研究』 第8号, 學術刊行專門委員會, 1966, 9面; 中川浩一, 앞의 책, 59면; 島津俊之, 앞의 글, 90-91면.

9) 師範學校 編輯, 「凡例」, 『日本地誌略』 1(1874.8. 改正), 東京: 文部省, 1874; 文部省 編纂, 「凡例」, 『日本地誌略』 1(1874.9. 改正), 東京: 師範學校(彫刻), 1874; 中川浩一, 앞의 책, 57-58면.

문부성이 간행한 최초의 지리교과서였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 전국에서 復刻해 사용할 정도로 가장 널리 보급・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소학교용 지리교과서로서, 그 기술 방식과 내용 형태는 이후 일본 지리교과서의 기본형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0]

하지만『일본지지략』은 오쓰키의 명의가 아니라 '師範學校編輯'으로 발행되었다. 오쓰키도 자신의 원고에 의거해 그 후 문부성에서『일본지지략』을 '訂正・出版'했다고 밝히고 있다.[11] 아마 문부성 혹은 사범학교 역시 오쓰키가 참고했던 미간행 상태의『일본지지제요』초고를 바탕으로 오쓰키의『일본지지략』초고를 좀 더 치밀하게 '訂正'해서 1874년 8월에 '출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오쓰키가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그가『일본지지략』의 초고를 편찬한 뒤인 1874년 봄에 사직했을 뿐 아니라 그 후『일본지지요략』을 집필하는 데 전념해 그해 6월에 완성했던 사실로 미루어,[12] 그가 사범학교에서『일본지지략』을 정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비록『일본지지략』의 오쓰키 원고와 사범학교 편집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가『일본지지략』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편찬했던 사실은 확실하다.

『일본지지략』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쓰키와 사범학교가 이를 편찬・개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참고했던『일본지지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일본지지제요』는 1873년 5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될 만국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의 정원 지지과에서 1872년 10월부터 집필하기 시작해 그 다음해인 1873년 3월에 4책으로 일단 마무리된 지지서이다. 이때 완성된『일본지지제요』稿本은 예정대로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어 상패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일본지지제요』稿本은 집필기간이 짧았던 탓에 근거로 삼은 옛 지도・전

10) 海後宗臣 編纂, 앞의 책, 1965, 625-626면; 앞의 책, 1966, 585-588면;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 앞의 책, 143면; 中川浩一, 앞의 책, 55-57면, 59면; 島津俊之, 앞의 글, 91면; 윤소영, 앞의 글, 2013, 370-374면.

11) 大槻修二,「例言三則」,『改正日本地誌要略』, 東京: 柳原喜兵衛, 1886, 1-2面.

12) 大槻修二,「自敍」,『日本地誌要略』1, 東京: 大槻修二, 1875, 1-2面.

적・견문 등에 착오와 누락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지지과는 1874년 8월 그 소속이 正院에서 內務省 地理寮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원고를 각 府・縣에 내려 보내 실제 지역을 참관하고 정정토록 한 뒤 다시 교감한 끝에, 1874년 12월에 『일본지지제요』 1-3책을 발행해 그 다음해 1월 '천황'에게 '진헌'했으며, 1879년 12월까지 총 8책 77권을 간행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위치와 면적 및 영토 경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본 최초의 統計的・辭典的 官撰地誌인 『일본지지제요』의 출판 목적은 대외적으로 일본을 과시하려는 국위선양의 도구로, 대내적으로 군주에게 통치대상을 새롭게 알려주고 통합된 국토를 직접 보게끔 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각각 이용하는 데 있었다. 나아가 이 책은 국민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가・국토에 대한 애착심과 이해를 불어넣어 국민 만들기를 위한 교육용 도구로써 출판되기 이전부터 원고본의 형태로 지리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활용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일본지지략』이었다.[13]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본지지제요』 5(권50)의 '隱岐' 항목에 '松島'와 '竹島'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됨으로써 이후 『일본지지략』을 비롯한 일본지리교과서에 울릉도와 독도의 내용이 실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쓰키와 사범학교가 『일본지지략』을 개정할 때 참고했던 『일본지지제요』는 1873년 4월에 완성된 만국박람회 출품본인 稿本과 출판본(1874.12-1879.12) 중 어느 것이었을까? 우선 1873년 만국박람회에 『일본지지제요』가 몇 권까지 출품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출판본의 간행연도로 보아 아마 1874년 12월에 출판된 제1-3책일 것으로 추측한 견해가 있다.[14] 이와 달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된 『일본지지제요』 稿本은 『日本地誌提要 第一稿』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5] 『日本地誌提要 第一稿』는 「例言」에 '明治6[1873]年 第3月'이라고 적혀 있

13) 地誌課 編纂, 「凡例」, 『日本地誌提要』 1, 東京: [內務省]地誌課, 1874, 1面; 海後宗臣 編纂, 앞의 책, 1965, 625-626면; 앞의 책, 1966, 591-592면; 藤岡謙二郎, 「『日本地誌提要』の價値」, 『日本地誌提要』 全一冊, 東京: 臨川書店, 1982, 1-2面; 島津俊之, 앞의 글, 91-95면, 108면; 윤소영, 앞의 글, 2013, 372면; 심정보, 앞의 글, 437-438면.

14) 藤岡謙二郎, 앞의 글, 1면.

15) 島津俊之, 앞의 글, 92-93면.

고, 이어 '總閲'을 담당한 쓰카모토(塚本明毅)・시게노(重野安繹)의 이름을 비롯해 '纂修'・'書手'한 사람의 명단이 나열되었으며, '日本全圖 2幀'에 "지지제요를 첨부해 오스트리아박람회에 出示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4책으로 구성된『日本地誌提要 第一稿』는 畿內・東海道(1), 東山道・北陸道(2), 山陰道・山陽道(3), 南海道・西海道[琉球]・北海道[樺太](4) 등 당시 일본 영토 전체가 기술된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16] 따라서 일부 지역만을 포함한 출판본 제1-3책보다는『日本地誌提要 第一稿』를 출품했다는 견해가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오쓰키와 사범학교가『일본지지제요』등을 참고로『일본지지략』을 개정했던 시기는 각각 1874년 1월경과 그해 8월경이었으며,『일본지지제요』는 1874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오쓰키와 사범학교가 참고했던 것 역시 출판본이 아니라 만국박람회 출품본인『日本地誌提要 第一稿』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쓰키가 참고했던『일본지지제요』'草稿'는 이미 완성된『日本地誌提要 第一稿』가 틀림없다는 견해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고 여겨진다.[17]

그러나 '松島'와 '竹島' 관련 내용에 국한해 살펴볼 경우, 오쓰키가『日本地誌提要 第一稿』를 참고로『일본지지략』을 편찬했다는 견해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후술하듯이, 그 이유는『日本地誌提要 第一稿』에는 '竹島'만 서술되었을 뿐 '松島'가 전혀 기술되지 않았으며, 또『日本地誌提要 第一稿』나 출판본인『일본지지제요』5(1878)에는 모두 서술되지 않았으나 출판하기 직전의『일본지지제요』최종 교정본('原稿')에만 기재된 내용—島前과 島後 사이의 연해에 있는 大小 島嶼 약 183개를 179개로 수정한 표시—이『일본지지략』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오쓰키가 참고했던 다른 자료들에 '松島' 관련 내용이 실려 있었다면, 또 '松島' 관련 내용이 오쓰키의『일본지지략』초고에는 빠졌다가 사범학교가 개정할 때 추가되었다면, 그가『日本地誌提要 第一稿』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오쓰키『일

16) 太政官 正院 地誌課 編,『日本地誌提要 第一稿』1-4, 東京: 同課令写, 1873.
17) 島津俊之, 앞의 글, 91면, 108면.

본지지략』의 초고를 집필하면서 참고한 "이미 완성되어 있던" 『일본지지제요』 '草稿'는 『日本地誌提要 第一稿』나 출판본(1878)이 아니라 『일본지지제요』를 출판하기 위한 최종 교정본('원고') 직전의 '초고'본이었다고 판단된다. 사범학교가 『일본지지략』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데 참고했던 것도 『일본지지제요』 '초고'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오쓰키와 사범학교가 정원 지지과로부터 교정 상태에 있는 『일본지지제요』 '초고'본을 입수・참고했다는 사실은 『일본지지략』의 편찬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日本地誌提要 第一稿』(4책)는 보완・개정을 거쳐 『일본지지제요』(8책)로 출판되면서 분량이 두 배 이상 증가되고 내용도 훨씬 자세하고 풍부해졌다. '松島'・'竹島'와 관련된 내용이 실린 『일본지지제요』 5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松島'와 '竹島'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日本地誌提要 第一稿』와 『일본지지제요』 5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거론된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본지지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松島'・'竹島'와 관련된 『日本地誌提要 第一稿』 3 山陰道의 '隱岐國'과 『일본지지제요』 5 '隱岐'의 '島嶼' 항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松島 海部郡, 大森島 前後島의 사이, 小森島 同上, 文覺島 知夫郡, 波賀島 同郡, 隱岐의 小島 周吉郡의 東洋 羣島의 總稱 ○ 또한 西北에 竹島가 있다. 朝鮮地方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 [隱岐]國內 大小 77島.[18]

> 島津島 知夫郡 知夫里의 남쪽 2町에 있다. 둘레는 29정 51間, 동서 5정, 남북 9정.
> 松島 일명 島山. 海士郡 豊田村에 속한다. 中島의 동쪽 18정, 둘레 1리 9정 44간, 동서 7정, 남북 13정.
> 大森島 隱地郡 津戶村에 속한다. 松島의 북쪽 20정, 둘레 25정 57간, 동서 7정, 남북 5정.
> ○ 本州의 屬島[부속섬]. 知夫郡 45, 海士郡 16, 周吉郡 75, 穩地郡 43, 합계 179. 이를 총칭해 隱岐의 小島라고 부른다. ○ 또한 서북방으로 松島・竹島 2島가 있다. 예부터 민간에서 전해진다. 隱地郡 福浦港에서 松島에 이르는 海路는 약 69里 35町, 竹島에 이르는 해로는 약 100리 4정 여, 조선에 이르는 해로는 약 136리 30정.[19]

---

18) 太政官 正院 地誌課 編, 『日本地誌提要 第一稿』 3, 東京: 同課令写, 1873, 24面.

먼저『日本地誌提要 第一稿』에서는 海部郡(海士郡)에 속한 '松島'를 비롯해 비교적 큰 섬 5개를 나열하고 '隱岐의 小島'를 周吉郡의 동쪽 바다에 있는 羣島를 총칭한다고 설명했으며, 그 다음에 서북에 있는 '竹島'는 조선 지방과 거리가 멀지 않고, 오키국 내에 크고 작은 77개의 섬이 있다고 서술되었다. 여기에서 '竹島'만 거론되고 '松島'가 생략된 이유는 隱岐의 소도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요 섬들만 나열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松島의 존재를 몰랐다기보다 '竹島'와 부속 관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일본지지제요』5를『日本地誌提要 第一稿』와 비교해 살펴보면, 주요한 섬인 松島 등의 위치와 둘레를 나열하고 '隱岐의 小島'를 정의한 뒤 그 서북에 있는 '竹島' 혹은 '松島'의 위치와 거리를 서술한 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隱岐의 小島'는 周吉郡의 동쪽 바다에 있는 羣島 77개가 아니라 隱岐國 4군에 屬島 179개 섬을 총칭했으며, 그 서북쪽에 있는 섬은 '竹島' 외에 '松島'가 추가되면서 그 위치와 거리도 조선과 멀지 않다는 내용이 민간에서 전해오는 말을 인용해 隱地郡 福浦港을 기준으로 두 섬과 조선까지 거리를 각각 서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松島'의 경우, 전자는 海士郡에 속한 섬이고 후자는 독도이다.

요컨대,『일본지지제요』는『日本地誌提要 第一稿』를 수정・보완한 탓에 분량이 늘어나면서 내용도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었는데, 두 책에서 모두 隱岐의 小島에 그 서북쪽에 있는 竹島와 松島가 포함되지 않으며, 竹島와 松島를 서로 부속섬 관계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일본지지제요』의 松島와 竹島의 소속 여부를 둘러싸고 현재 한・일 양국사이에는 상반된 평가와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松島와 竹島가 179개의 '隱岐의 小島'와는 별개의 항목에서 서술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를 인지했음에도 '隱岐의 小島' 혹은 '屬島'인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파악하였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오키의 해양상 위치를 설명하려고 적은 데 불과하다는 견해이다.[20] 반면 일본에서는 오키에 島津島 외에

19) 正院 地誌課 編,『日本地誌提要』5 卷50, 東京: 日報社, 1878, 10-11面.
20) 박병섭,「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다케시마=독도 인식」,『독도연구』제3호, 영남대 독도연구

179개의 小島가 존재하고 또 그 서북방에 松島・竹島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 竹島(울릉도)에서 조선까지 해로의 거리를 약 136리 30정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21] 이러한 두 해석과 주장에 대한 평가는 일단 차치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이러한 견해차가 '隱岐'의 '島嶼' 항목에 松島・竹島가 서술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점만 지적해두고자 한다.

3. 『일본지지략』의 오키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일본지지제요』의 초고를 토대로 『일본지지략』을 저술한 오쓰키는 松島와 竹島의 소속을 어떻게 파악했을까? 『일본지지략』은 1874년 8월 개정본이 널리 보급된 이후 1877년 1월에 다시 개정본이 발행되었으며, 이후에도 1879년 4월과 1880년 9월 등 두세 차례 개정본이 출판되었다. 『일본지지략』 1877년 1월과 그 이후 개정본은 1874년판과 비교해 삽화나 지도가 다소 바뀌고 본문 내용이 약간 수정되었으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시 사용되었던 『일본지지략』은 한 종류였다고 평가받을 정도였다.[22]

그렇지만 지리교과서의 편찬 목적 중 하나는 명확하게 획정된 일본 영토의 경계와 위치를 국민이나 학생들에게 올바로 인식토록 하는 데 있었던 만큼, 『일본지지략』 1877년 1월 개정본에도 일본 영토의 변화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일본의 위치와 경계를 서술한 『일본지지략』 1의 '總論'에서 "북의 2大島를 北海道・樺太라고 한다"는 부분이 "북의 1大島를 北海道라고 부른다"로 바뀌었으며,[23] 『일본지지략』 4에 들어 있던 '柯[樺]太州' 역시

소, 2007, 42-43면;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28号, 鳥取看護大學・鳥取短期大學北東アジア文化總合研究所, 2008, 33-35面; 유미림・최은석, 앞의 책, 124-125면; 윤소영, 앞의 글, 2013, 373-382면; 심정보, 앞의 글, 438-439면.

21) 下條正男, 實事求是―日韓のトゲ、竹島問題を考える―第22回 「朴炳涉氏の「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を駁す(『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號)」, Web竹島問題研究所, 2009.8.7.,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5-d.html(2020.02.05. 검색).

22) 海後宗臣 編纂, 앞의 책, 1965, 625면.

23) 師範學校 編輯, 『日本地誌略』 1(1874.8. 改正), 東京: 文部省, 1874, 1面; 『日本地誌略』 1(1877.1. 改正), 東京: 文部省, 1877, 1面.

삭제되었다.[24] '樺太'가 1875년 5월 러・일 양국의 樺太・千島交換条約(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체결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사실이 정확히『일본지지략』에 서술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일본지지략』3의 '隱岐國'은 편집상의 변화로 면수와 문단나누기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이 '隱岐國'에서 독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群島가 北海 중에 줄지어 우뚝 솟아['列峙'] 國을 이룬다. 知夫, 海部, 周吉, 越智의 4郡이 있다. ○ 全國은 4島로 구성된다. 남쪽은 知夫里島, 中島, 西島의 3島로 나뉘며, 그 둘레를 합계하면 약 44여 리로 합해서 島前이라고 칭한다. 북쪽의 一島는 둘레가 약 30여 리로 칭해서 島後라고 부른다. 두 섬의 거리는 겨우 6여 리로, 그 연해에 있는 大小 島嶼가 약 183[개]이다. 또한 西北의 洋中에 松島・竹島가 있다.[25]

『일본지지략』은『일본지지제요』를 참조했던 만큼, 오키의 지리적인 위치를 서술한 구성도 서로 비슷하고 내용만 줄어들었다. 그 가운데 "群島가 北海 중에 줄지어 우뚝 솟아 國을 이룬다"는 첫 문장은『日本地誌提要 第一稿』'隱岐國' '形勢'의 "島前・島後의 諸島"가 "群島가 北海 중에"로 바뀌었을 뿐 동일하다.[26] 또한 '隱岐의 小島'에 松島・竹島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달라지지 않았다.『일본지지략』이 소학교용 지리교과서였으므로『일본지지제요』보다 내용이 줄었을 뿐 松島・竹島가 '隱岐의 小島'에서 제외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짐으로써 오키의 해양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체제가 견지되었던 것이다.[27]

그러나 오키의 부속섬이 179개에서 183개로 늘어나고 오키와 松島・竹島까지 거리가 생략된 점은 다르다. 오키의 부속섬 수를 183개로 서술한 이유는 오쓰키가『일본지지제요』출판본이나 최종 교정본이 아니라 이를 보완・

---

24) 師範學校 編輯,『日本地誌略』4(1874.8. 改正) 柯太州, 東京: 文部省, 1874, 1-10面;『日本地誌略』4(1877.1. 改正), 東京: 文部省, 1877.

25) 師範學校 編輯,『日本地誌略』3(1874.8. 改正) 東京: 文部省, 1874, 14面;『日本地誌略』3(1877.1. 改正), 東京: 文部省, 1877, 19-20면.

26) 太政官 正院 地誌課 編,『日本地誌提要 第一稿』3 山陰道, 東京: 同課令写, 1873, 23面.

27) 윤소영, 앞의 글, 2013, 376면; 심정보, 앞의 글, 446면.

수정하기 직전의 초고본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일본지지제요』의 최종 교정본(‘原稿’)의 “○ 本州의 屬島[부속섬]. 知夫郡 45, 海士郡 16, 周吉郡 75, 穩地郡 43, 합계 179. 이를 총칭해 隱岐의 小島라고 부른다”는 부분에는 ‘일백 8십 3’에 빨간색으로 ‘8’과 ‘3’을 각각 ‘7’과 ‘9’로 수정해놓았다. 즉, 부속섬의 합계를 ‘183’으로 잘못 계산했던 것을 ‘179’로 수정했던 것이다.[28] 따라서 오쓰키 혹은 사범학교는 『일본지지략』을 편찬할 때, 『日本地誌提要 第一稿』이나 『일본지지제요』 최종 교정본(‘원고’)이 아니라 그 이전의 초고본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77년 1월 『일본지지략』의 개정본에도 부속섬의 합계를 여전히 ‘183’으로 서술한 이유는 아마 『일본지지제요』 5가 1878년 1월에 간행되어 미처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일본지지략』의 ‘隱岐國’의 항목에는 『일본지지제요』와 마찬가지로 松島・竹島가 ‘隱岐國’의 항목에 들어 있는 탓에, 그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오쓰키가 저술한 『일본지지략』의 지명사전인 『日本地名字引』은 참고할 만하다. 오쓰키는 『일본지지략』의 초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874년 5월경 『일본지지략』에 적힌 지명을 위주로 『일본지명자인』을 발행하였다.[29] 따라서 『일본지명자인』은 『일본지지략』의 체제와 동일하게 畿內 8道의 國別로 지명을 정리해 열기하고, 각각의 한자 지명 옆에 일본어 발음을 가타가나로 적은 후리가나(한자읽기)를 병기하였다.

『일본지명자인』의 ‘隱岐’ 항목에는 知夫・海部・周吉・越智의 4郡을 비롯해 각종 섬과 항구 등의 지명이 적혔는데, ‘隱岐ノ小島오키노코시마’는 있지만 松島와 竹島는 기재되지 않았다.[30] 오쓰키가 저술한 『일본지지략』의 초고에 松島와 竹島가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松島와 竹島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또한 ‘隱岐ノ小島오키노코시마’는 『일본지지략』에는 거론되지 않고 『일본지지제요』에만 서술

28) 修史局 編, 『日本地誌提要』 8, 山陰道山陽道部 原稿, [1874], 5-6面.
29) 大槻修二, 「例言」, 『日本地名字引』, 東京: 森屋治兵衛, 1874, 2-3面.
30) 大槻修二, 『日本地名字引』, 東京: 森屋治兵衛, 1874, 104-105면.

된 사실로 미루어,『일본지명자인』은 자신이 저술한『일본지지략』에 적힌 지명을 위주로 삼았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일본지지제요』의 지명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31] 아마도 '隱岐ノ小島오키노코시마'가 오키의 부속섬을 총칭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쉽게 파악하도록 추가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오쓰키가 1년 뒤인 1875년 10월 지명 옆에 후리가나뿐 아니라 각종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보완・개정한『일본지명자인』의 '隱岐' 항목 마지막에는 松島와 竹島가 새로 기재되었다. 이와 관련된 지명을 추려보면, "隱岐ノ小島오키노코시마 島後의 東海上에 있는 群小島의 총칭", "松島마쓰시마 隱岐 西北 海上 148리에 있다", "竹島다케시마 同 212리에 있다. 兩島 모두 朝鮮에 接한다" 등이다.[32]

이처럼『일본지명자인』개정본에는 여전히『일본지지제요』에만 서술된 '隱岐ノ小島오키노코시마'가 등장하는데, 그 설명 중 '島後'는 '島前'의 誤記라고 여겨지지만 그 동쪽에 있는 작은 섬들을 총칭한다고 규정함으로써 '隱岐ノ小島'에 松島와 竹島가 포함되지 않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또 松島와 竹島에는『일본지지략』에는 없었던 오키를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기재되었지만, 그 거리는『일본지지제요』에 서술된 것과는 다르다. 가장 주목할 점은 두 섬이 모두 "조선에 接한다"는 내용인데, 오키에 속해 있지만 단순히 그 위치가 조선에 가까워서 근접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조선과 잇닿은 조선 영토라는 의미인지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다음 장에서 곧 다룰 관련 지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오쓰키가 松島와 竹島를 각각 현재의 독도와 울릉도로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점, 또『일본지명자인』의 편찬 목적은『일본지지략』에 기재된 지명을 해설하는 데 있는 만큼 두 섬이 적힌 것 자체가 일본 영토임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

31) 따라서『일본지명자인』은『일본지지략』의 지명사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海後宗臣 編纂,「日本地理教科書總目錄」, 앞의 책, 1966, 501면.

32) 大槻修二,『日本地名字引』, 東京: 大槻修二(版主), 1875, 115-116面.

4.『일본지지략』의 수록 지도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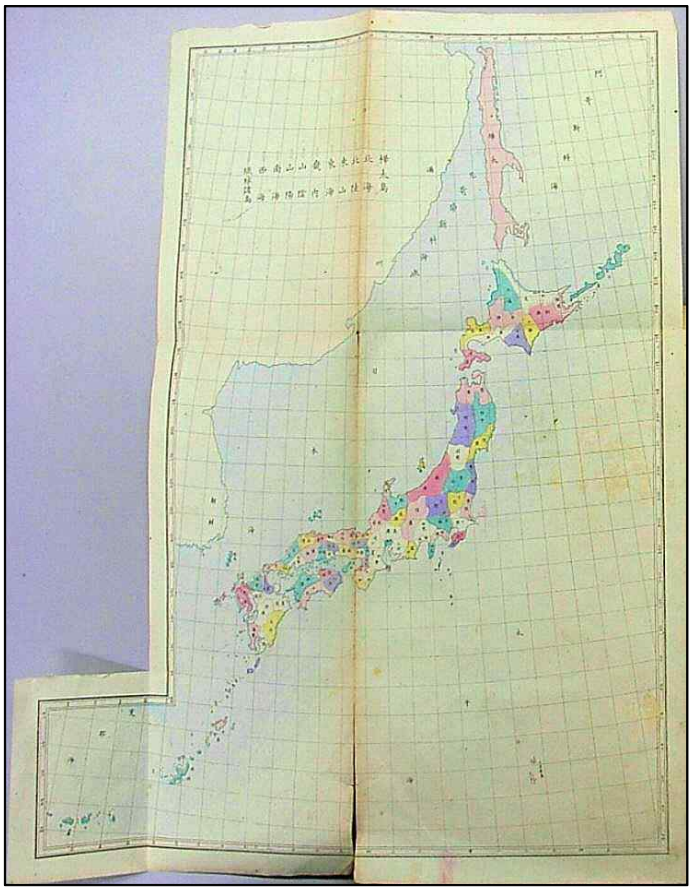
『일본지지략』의 「범례」에는 "湖・河・山岳 등의 위치에 이르러서는 왕왕 書中에 다 쓰지 못한 것이 있다. 이들은 권말에 附錄된 地圖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編中에 삽입한 지도는 각국에 모두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니며, 오로지 가장 유명한 地를 골라서 내놓은 것이다"[33]고 적혀 있다.『일본지지략』 1의 앞부분에는 일본전도가 들어 있으며, 각 권의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된 지도는 각 권에 해당되는 지역의 道別 지도가 실렸는데 國別로 각기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다. 단,『일본지지략』 1874년 1월 개정본의 권말에 실렸던 道別 지도는 1877년 1월 개정본부터는 맨 앞으로 옮겨졌다. 또 각 권의 본문 곳곳에는 중요한 지역에 관한 지도가 삽입되어 있다. 즉, 본문에서 자세하게 서술하지 못한 山河 등의 위치는 지도에 근거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일본지지략』 3의 '隱岐國' 항목에서 다소 애매모호하게 서술되어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던 松島・竹島의 위치 및 소속 여부는 지도를 근거로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일본지지략』에서 독도와 관련된 3개의 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74년 8월 개정본『일본지지략』 1에는 지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日本國全圖'(지도 1)[34]가 실려 있다. 이 지도에는 일본 영토가 國別로 색칠되어 있는데, 樺太와 千島列島, 그리고 小笠原島・琉球諸島・對馬島 등 국경에 위치한 섬들도 이름과 함께 채색되어 그려져 있다. 그러나 1877년 1월 개정본『일본지지략』 1에 실린 '일본국전도'(지도 2)는 '1874년 8월 개정'본의 것과 그 형태가 동일하지만, '樺太'는 조선 등 외국과 동일한 무채색으로 표시되었다. 즉 1875년 5월 樺太・千島交換条約으로 樺太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당시의 상황이 지도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는 樺太가 서술되지 않고 빠진 본문의 내용과도 일치된다.

이처럼 '일본국전도'에는 일본의 영토 변동 상황이 정확히 표시되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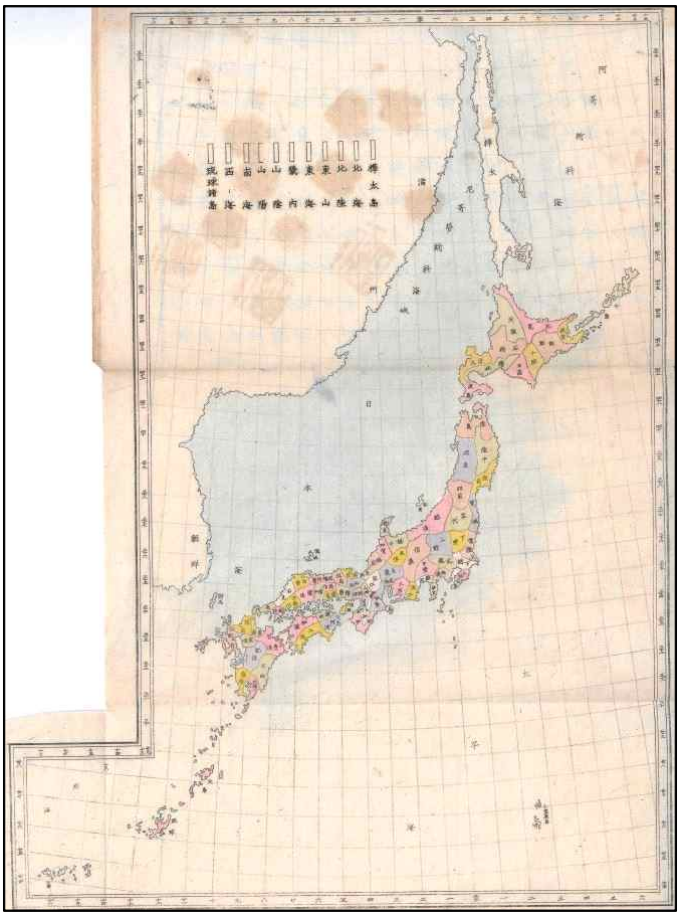
33) 師範學校 編輯, 「凡例」,『日本地誌略』 1(1874.8. 改正), 東京: 文部省, 1874, 1面.
34) 오쓰키가『日本地誌略』에 이어 저술한『日本地誌要略』 1에는 「日本國全圖」가 수록되어 있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大槻修二,『日本地誌要略』 1(1876.6.), 東京: 大槻修二, 1876, 卷首面.

1874년 8월 개정본과 1877년 1월 개정본에는 모두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채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35] 따라서 '일본국전도'에 근거해 판단하면, 본문에 서술된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는 일본 영토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도 1〉「日本國全圖」(1874.8)

35) 師範學校 編輯,『日本地誌略』1(1874.8. 改正), 東京: 文部省, 1874, 卷首面;『日本地誌略』1(1877.1 改正), 東京: 文部省, 1877, 卷首面;『日本地誌略』1(1880.9.), 東京: 文部省, 1880, 卷首面.



〈지도 2〉「日本國全圖」(1877.1)

둘째, '일본국전도'에 상응해『일본지지략』3에 실린「山陰道之圖」(지도 3)에도 山陰道 지역이 國別로 채색되었지만, 이 지도의 경위도 밖에 위치한 松島와 竹島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36] 이와 관련해서『일본지지략』1에 실린「畿內及東海道之圖」(지도 4)에 경위도 범주 밖에 있는 '八丈嶋'와 '小笠原島'가 별도의 插圖(부분도)에 그려져 있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37]「山陰道之圖」에 울릉도

36) 師範學校 編輯,『日本地誌略』3(1874.8. 改正), 東京: 文部省, 1874, 卷末面;『日本地誌略』3(1877.1. 改正), 東京: 文部省, 1877, 卷首面.

와 독도가 별도의 지도로 표시되지 않은 채 제외된 사실은 두 섬이 山陰道 혹은 오키의 관할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기 때문이다.

단, 1877년 1월 개정본을 '飜刻'한『개정일본지지략』3의「山陰道之圖」에는 松島와 竹島가 그려진 것도 있다. 이「山陰道之圖」는 그 안에 일본 전 지역 중 山陰道 내 8國의 위치를 표시한 삽도가 수록되어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인데, 두 지도에 모두 '松島'와 '竹島'가 그려져 있다. 이들 중「山陰道之圖」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오키와 달리 두 섬은 채색되지 않은 반면, 山陰道의 위치를 표시한 삽도에는 오키와 두 섬 모두 동일한 빨간색으로 채색되었다. 또한 곧이어 다루겠지만 같은 책에는 두 섬이 존재하지 않은「隱岐圖」가 실려 있다. 따라서 松島와 竹島의 소속 여부를 확실하기 단정하기 어렵지만, 오키 소속이라고 혼동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동일한 판본의『개정일본지지략』1에는 '일본국전도'가 누락된 탓에 여기에도 松島와 竹島가 표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38]

이처럼 松島와 竹島가 그려진「山陰道之圖」는 필자가 살펴본 수십 종의『일본지지략』중에 유일할 정도로 매우 희귀한 異種이다. 이는 나이토(內藤彦一)가『일본지지략』3을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問目標註'를 넣어 간행한 것이나, 그보다 간행연도가 더 늦은『일본지지략』에도 松島와 竹島가 그려지지 않은「山陰道之圖」가 여전히 수록된 점으로도 확인된다.[39] 다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번각판의 주체에 따라 내용이 아니라 지도는 다른 것이 수록될 수도 있으며, 松島와 竹島가 기재된 본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松島와 竹島가 오키에 소속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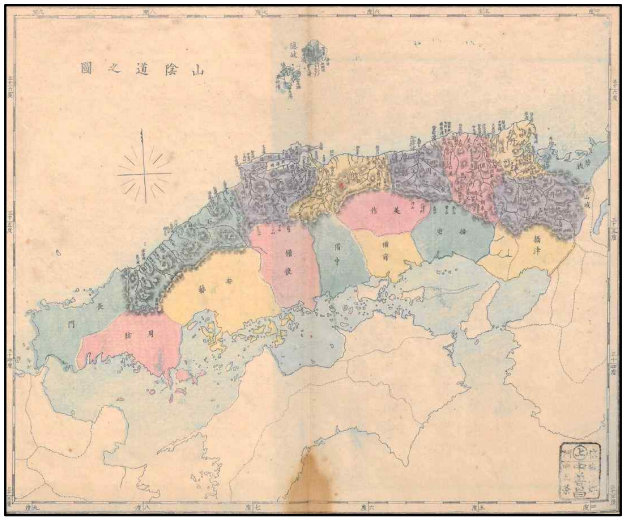
이러한 두 섬의 소속을 둘러싼 혼동은『일본지지략』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문부성에서 편찬한 소학교 지리교과서와 부도・지도들에도 나타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의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1696년 막부의 竹島渡海禁止令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두 섬의 소속

37) 師範學校 編輯,『日本地誌略』1(1874.8. 改正), 東京: 文部省, 1874, 卷末面;『日本地誌略』3(1877.1. 改正), 東京: 文部省, 1877, 卷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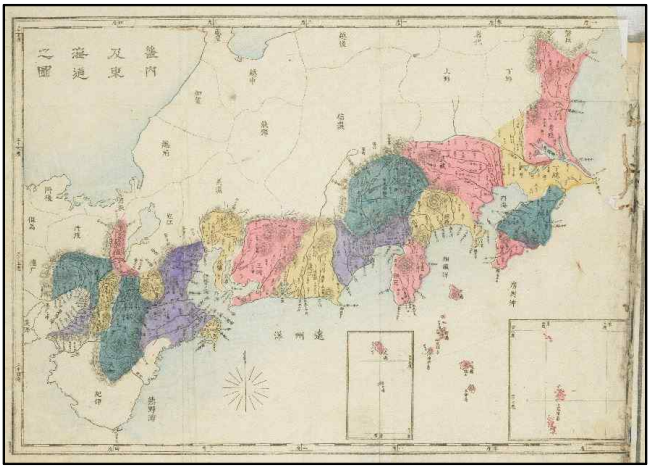
38) 師範學校 編輯,『改正日本地誌略』3(伊賀上野 桂雲堂藏版), 東京: 文部省(豊住移兵衛), 1880, 20面.

39) 師範學校 編輯, 內藤彦一 問目標註,『日本地誌略』3(1877.1. 改正), 東京: 內藤彦一(文部省), 1879;『日本地誌略』3, 內田平兵衛, 1882.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일본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했던 1877년 3월 태정관지령 전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40)



〈지도 3〉「山陰道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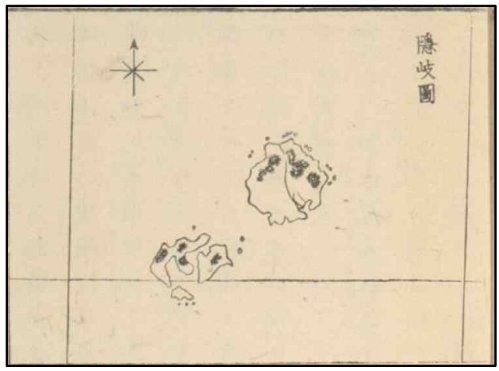


〈지도 4〉「畿內及東海道之圖」

40) 윤소영, 앞의 글, 2013, 379면; 심정보, 앞의 글, 450-454면.

셋째,『일본지지략』3의 본문에는 오키가 서술된 본문의 동일한 면에「山陰道之圖」와 관련 있는「隱岐圖」(지도 5)가 실려 있는데, 松島와 竹島는 그려져 있지 않다.[41]「隱岐圖」를 "또한 西北 洋中에 松島・竹島가 있다"는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松島・竹島가 오키의 '大小 島嶼'에 포함된 속도라고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일본지지략』에 수록된 '日本國全圖'와「山陰道之圖」, 그리고「隱岐圖」에는 모두 '松島'와 '竹島'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들 3개의 지도를 본문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松島와 竹島가 오키의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따라서 松島와 竹島는 오키의 해양상 위치 혹은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5〉「隱岐圖」

한편『일본지지략』에 수록된 지도와 관련해 오쓰키가 1875년 10월에 별도로 편찬한『日本全圖暗射指南譜』와 이에 실린 '暗射日本圖(日本全圖暗射)'(지도 6)는 松島와 竹島의 소속 여부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 지남보는 동생 후미히코가 제작한 '암사일본도'를 위해 오쓰키가 일종의 입문서('指南譜') 형식으로 전국을 '5畿 8道'로 나누어 '府県名'・'內海'・'開港場 開市'・'大山'・'島嶼 周回'・'海峡'・'大川'・'湖沼'・'名邑'・'港湾' 등의 항목별로 중요한 지명의

41) 師範學校 編輯,『日本地誌略』3(1874.8. 改正), 東京: 文部省, 1874, 14面;『日本地誌略』3(1877.1. 改正), 東京: 文部省, 1877, 20面; 심정보, 앞의 글, 446-447면.

이름을 거론하면서 표로 정리한 것이다. 예컨대, '島嶼 周回' 항목의 '隱岐'에는 "島前 西島 20里 中島 16리, 島後 30里"라고 적혀 있을 뿐, 竹島와 松島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처럼 오쓰키는 『일본전도암사지남보』에서 오키의 주요섬인 島前과 島後만을 기록하고 竹島와 松島보다 더 큰 섬들도 생략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두 섬의 소속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42]

그런데 오쓰키는 『일본전도암사지남보』를 편수하는 과정에서 내무성 지지료의 편찬서, 이노(伊能忠敬)의 '實測錄'을 근거로 삼았으며, 문부성 재직 당시 열람했던 '官邊의 鈔錄'을 참고했다고 밝혀두었다. 이들 가운데 내무성 지지료의 편찬서와 '관변의 초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노의 '실측록'은 『大日本沿海實測録』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일본연해실측록』은 간접적으로나마 오쓰키가 竹島와 松島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노는 일본 역사상 최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제작자로 일본 전국을 측량했으며, 그가 죽은 3년 뒤인 1821년에 다카하시(高橋景保) 등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大圖・中圖・小圖 등 3종류 총 225매의 축척 지도를 편찬해 막부에 제출하였다. 당시 지도와 함께 첨부된 부속자료가 바로 『대일본연해실측록』(14책)이다. 이 지도들은 원래 정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伊能圖」 혹은 「伊能大圖」로 불리고 있으며, 『대일본연해실측록』의 이름을 본떠 「大日本沿海實測圖」 혹은 「大日本沿海輿地全圖」라고도 부르지만 모두 뒷날 편의상 붙인 것이다.[43] 1867년에 幕府開成所에서 伊能小圖를 근거로 「官板實測日本地圖」를 발행했으며, 메이지유신 후 1870년에는 開成所를 계승한 大學南校에서 「관판실측일본지도」를 재판하면서 『대일본연해실측록』을 함께 간행하였다.[44]

---

42) 大槻修二, 『日本全圖暗射指南譜』, 東京: 森屋治兵衛(版主 大槻修二), 1875.

43) 伊能圖의 原本은 1873년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伊能家에서 보관하고 있던 副本을 정부가 넘겨받았는데, 이후 1877년 9월 小圖를 근거로 文部省의 「日本全圖」, 1878년 6월 中圖를 근거로 內務省地理局의 「實測畿內全圖」, 1880년에 中小圖를 기반으로 「大日本國全圖」, 1884년 大圖와 中圖를 근거로 陸軍參謀本部測量部의 「輯製20萬分1圖」의 기본도가 각각 제작되는 등 일본 메이지시대 거의 모든 지도의 기본 자료가 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山本武夫, 「伊能圖」, 『國史大辭典』 1, 東京: 吉川弘文館, 1979, 763面; 織田武雄, 『地圖の歷史 日本篇』, 東京: 講談社, 1974, 113面.

44) 伊能忠敬 測定, 大學南校 編, 『大日本沿海實測録』, 東京: 大學南校, 1870.

『대일본연해실측록』에는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沿海와 街道를 따라서 측량했던 장소의 지명과 지명 사이의 거리, 측량 상 중요한 1000여 개 장소에 천문관측으로 결정된 緯度의 수치 등이 수록되었으며, 島嶼 등도 정리되어 있다.『대일본연해실측록』5에도 '隱岐國島前'와 '隱岐國島後'로 나누어, 각 郡·村 순서로 浦·岬 등 중요 지명의 경위도·거리·면적 등 기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隱岐國, 島後 : 島前 海士郡 知知井村에서 島後 越智郡 都萬村까지 渡海 直徑 4里 3丁"을 살펴보면, "越智郡 都萬村 36도 11분 : 3里 33町 52間 半, 北方村 長尾田 北方岬까지 3丁 7간 : 18町 36간, 同[北方村] 福浦 福浦岬까지 13丁 42간 : 32町 20간 반 (…)"[45] 등으로 독도와 관련 있는 '福浦'는 등장하지만, 松島와 竹島는 서술되지 않았다.

또한『대일본연해실측록』10의 '各國嶋嶼'에서는 이노 등이 '實測'·'遠測'한 섬들이 기록되어 있다. 목차에는 '隱岐國 77嶋'로 적혔으며, 본문에는 隱岐國에 속한 4군별로 '實測'·'遠測'된 섬들이 나열되었는데, 실측에만 섬의 둘레가 적혀 있다. 예컨대, 知夫利郡의 실측에는 "竹嶋 둘레 2町 40間", 海士郡의 실측에는 "松嶋 : 또 島山이라고 부른다 둘레 1리 9정 44간", 越智郡의 원측에는 "東桂嶋·西桂嶋 (…) 桂嶋 (…) 松嶋", 周吉郡의 실측에는 "松嶋 둘레 10정 19간," 원측에는 "松嶋 加茂村 (…) 松嶋 布施村 (…) 松嶋 西村" 등이다.[46] 여기에 서술된 '松嶋'와 '竹嶋'는 모두 '隱岐의 小島'에 속한 섬들로,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지 않음은 분명하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키에서 '實測'하거나 '遠測'할 수 없는 섬이며, 이노 등도 두 섬을 '실측'하거나 '원측'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노는 오키 역시 실측하지 않았다.

아울러 오쓰키는 「대일본연해여지전도」와 「관판실측일본지도」 등을 참고했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 지도를 몰랐다거나 본 적이 없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대일본연해여지전도」와 「관판실측일본지도」는『대일본연해실측록』의 내용이 반영된 지도일 뿐 아니라 당시 일본 영토를 가장 정확하게 표시한 지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지도에도 울릉도

45) 伊能忠敬 測定, 大學南校 編,『大日本沿海實測録』5, 東京: 大學南校, 1870, 29-33면.
46) 伊能忠敬 測定, 大學南校 編,『大日本沿海實測録』10, 東京: 大學南校, 1870, 24-26면.

와 독도는 그려 있지 않다.[47] 따라서 오쓰키가 『대일본연해실측록』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를 오키의 부속섬이나 일본 영토로 파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오쓰키의 독도 인식은 『일본전도암사지남보』에 실린 후미히코의 '暗射日本圖(日本全圖暗射)'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암사일본도(일본전도암사)'의 정확한 명칭이나 발행연도는 확실치 않은데, 후미히코가 1874년에 「日本暗射圖」를 간행했다는 견해도 있고, 1876년에 소학교교과서로 그의 「暗射日本地圖」가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그는 1872년 10월 문부성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1873년 사범학교에서 『萬國史略』·『羅馬史略』 등을 번역·편집해 1874년에 간행했으며, 1874년 11월 宮城師範學校長으로 부임했다가 1875년 2월 文部省 報告課로 복귀한 후 1884년 2월 依願免職하고 文部省 御用掛에 근무하였다.[48] 특히 그가 1873년에 일본 영토의 확장에 관심을 갖고 『琉球新誌』와 「琉球諸島全圖」를 편찬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데,[49] 그 연장선상에서 문부성 혹은 宮城師範學校 재직 중 '암사일본도'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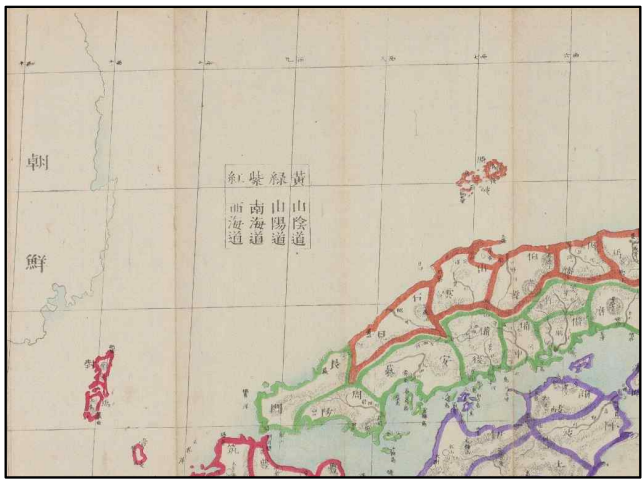
'암사일본도'는 당시 일본 영토 전체가 1매가 아니라 '北海道'·'北陸道'·'本州中央'·'九州' 등 4부분으로 나누어 그려졌는데, 『일본지지략』의 '日本國全圖'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일본 영토가 道別로 각각 달리 채색되었다. 특히 1875년 5월 이후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던 '千島'가 채색된 반면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樺太'가 지도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

47) 伊能忠敬研究會 編, 『忠敬伊能圖』, 東京: アワ・プラニング, 1998, 31면, 36-37면, 82-83면.

48) 筧五百里, 「大槻文彦博士年譜」, 『國語と國文學』 第5巻 7号, 東京大學國語國文學會, 1928, 23-38面; 海後宗臣·仲新 編, 앞의 책, 1969, 441-446면; 風間力三, 「日本語學者列傳 大槻文彦傳」 1, 『日本語學』 第1巻 1号, 東京: 明治書院, 1982a, 104-108面; 「日本語學者列傳 大槻文彦傳」 2, 『日本語學』, 第1巻 2号, 東京: 明治書院, 1982b, 106-111面; 「日本語學者列傳 大槻文彦傳」 3, 『日本語學』 第2巻 1号, 東京: 明治書院, 1983, 109-114面; 中川浩一, 앞의 책, 87-88면; 「大槻文彦年譜」, 創価大学文学部, 2003.4.16., http://home.soka.ac.jp/~hkaneko/etxt/otukinenpu.html(2020.03.14. 검색); 後藤齊, 「大槻文彦年譜(洋學に注目して)」, 2017.8.(2020.3. 개정), https://www2.sal.tohoku.ac.jp/~gothit/fumihikobiogr.pdf#search=%27%E5%A4%A7%E6%A7%BB%E6%96%87%E5%BD%A6%27(2020.03.14. 검색).

49) 大槻文彦, 『琉球新誌』 上·下, 東京: 煙雨樓, 1873; 「琉球諸島全圖」, 東京: 大槻文彦, 1873; 『琉球諸島全圖 圖解二巻附』, 東京: 煙雨樓, 1873. 이후 그는 일본어사전인 『言海』(1889-1891)와 『廣日本文典』(1897)을 비롯해 각종 문법책을 저술함으로써 국어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형인 오쓰키에 못지않게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다. 즉, 이 지도에는 당시 일본 영토의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던 것이다.[50] 그럼에도 이 지도에는 조선과 더불어 그 옆에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될 공간이 있지만 아예 아무런 섬도 그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후미히코는 두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51]



〈지도 6〉「暗射日本圖(日本全圖暗射)」

이처럼 竹島와 松島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암사일본도'에는 후미히코뿐만 아니라 오쓰키의 영토 인식이 담겨져 있다. 오쓰키도 동생의 '암사일본도'를 토대로 이에 상응하는『일본전도암사지남보』를 편찬했다고 밝혔듯이, 채색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와 구별하면서까지 명확하게 표시된 '암사일본도'의 일본 영토 범주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오쓰키는 당시 일본 영토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심도 갖고 있었던 만큼, 만약 竹島와 松島를 일본

50) 大槻修二,「暗射日本圖(日本全圖暗射)」,『日本全圖暗射指南譜』, 東京: 森屋治兵衛(版主 大槻修二), 1875.
51) 후미히코는 일본 영토의 확장에 커다란 관심과 집착을 보였는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878년 일본에서 울릉도 개척 논의가 벌어졌을 때, 그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면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방치되어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개척에 적극 나서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大槻文彦,「竹島松島ノ記事」,『洋洋社談』第45号, 朝野新聞社, 1878;「竹島松島ノ記事」,『復軒雜纂』, 東京: 慶文堂書店, 1902; 윤소영,「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인식」,『독도연구』제1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5, 129-132면.

영토라고 인식했더라면 '암사일본도'에 두 섬이 그려지지 않았던 점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오쓰키는『일본지지략』에서 松島와 竹島의 소속을 다소 애매하게 서술했지만,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일본지지략』에 수록된 '日本國全圖'·「山陰道之圖」·「隱岐圖」를 비롯해 오쓰키가 참고했던『대일본연해실측록』, 그리고 후미히코와 공동으로 편찬했던『일본전도암사지남보』와 이에 실린 '암사일본도' 등에는 당시 일본 영토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음에도 '松島'와 '竹島'는 전혀 기재되거나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일본지지략』에 거론된 松島와 竹島는 오키의 해양상 위치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서술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오쓰키는 일본 메이지시기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이자 지리교과서 집필자로서『일본지지략』과『일본지지요략』을 비롯해 수많은 지리교과서·부도를 편찬하였다. 특히 일본 문부성이 최초로 발행한『일본지지략』은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일본지리교과서의 기준이 되었던 대표적인 소학교 지리교과서였다. 오쓰키는 일본 영토의 확장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변동 상황을 교과서에 정확히 반영해두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토대로 오쓰키가『일본지리략』에서 독도를 어떻게 서술·인식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새롭게 밝힌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오쓰키가 문부성 재직 중인 1874년 1월『일본지지략』초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참고했던 태정관 정원 지지과의『일본지지제요』초고는 오스트리아 만국박람회에 출품한『日本地誌提要 第一稿』(1873.3., 4책)이나 출판 직전의『일본지지제요』최종 교정본('원고') 직전의 '초고'본이었다고 판단된다. 사범학교가『일본지지략』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데 참고했던 것도『일본지지제요』'초고'본이었을 것이다.『日本地誌提要 第一稿』에는 '松島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고,『일본지지략』에 서술된 島前과 島後 사이의 大小島嶼 약 183개라는 내용이『일본지지제요』최종 교정본에서 179개로 수정된 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오쓰키가 출판본인『일본지지제요』5(1878.1.)를 참고로『일본지지략』에서 松島를 서술했다는 기존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오쓰키는『일본지지제요』를 참고로『일본지지략』을 편찬하면서 松島와 竹島의 존재를 파악하고 본문에 서술했는데, 두 섬의 소속 여부를 다소 애매모호하게 기재한 탓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를 남겼음에도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는『일본지지략』에서『일본지지제요』와 마찬가지로 松島와 竹島가 부속섬 관계로 서술되면서 오키의 소도에 포함되지 않은 점, 오쓰키가 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일본지지략』에 적힌 지명을 위주로 편찬한『日本地名字引』(1874.5.)의 '隱岐' 항목에는 '隱岐ノ小島오키노코시마'가 들어 있을 뿐 松島와 竹島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비록『일본지명자인』의 개정판(1874.5.)에는 松島와 竹島가 추가되었지만, 두 섬이 '隱岐ノ小島'에 松島와 竹島가 포함되지 않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셋째,『일본지지략』에 수록된 '日本國全圖'와 이에 짝하는「山陰道之圖」·「隱岐圖」에는 모두 오키까지만 그려 있을 뿐 松島와 竹島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日本國全圖'에는 千島列島·小笠原島·琉球諸島 등을 비롯한 일본의 전 영토가 이름과 함께 國別로 채색되었는데, 1874년 8월 개정본에 일본 영토로 표시되었던 樺太는 1875년 5월 樺太·千島交換条約 체결 후 발행된 1877년 1월 개정본에서 러시아 영토로 표시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 영토의 변동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日本國全圖' 등에 松島와 竹島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지도와 본문의 내용을 비교해 살펴보면, 松島와 竹島는 오키의 해양상 위치 혹은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오쓰키는 동생 후미히코의 '암사일본도(일본전도암사)'를 근거로 편찬한『日本全圖暗射指南譜』에서도 松島와 竹島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오쓰키가『일본전도암사지남보』를 편수하는 과정에서 참고했던 이노의『대일

본연해실측록』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서술되지 않았으며, 당시 일본의 모든 영토가 채색되었던 '암사일본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될 공간이 있지만 아예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오쓰키뿐만 아니라 후미히코도 일본 영토의 중요성과 그 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던 만큼,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암사일본도'에 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쓰키가 편찬한 『일본지지략』을 비롯해 『일본지명자인』과 『일본전도암사지남보』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식된 근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더욱이 『일본지지략』은 오쓰키의 초고를 토대로 일본 문부성이 개정·발행한 최초의 일본지리교과서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오쓰키 개인뿐 아니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內藤彦一 問目標註,『日本地誌略』3, 東京: 內藤彦一, 1879.
大槻文彦,「竹島松島ノ記事」,『洋洋社談』第45号, 朝野新聞社, 1878.
_____,「竹島松島ノ記事」,『復軒雜纂』, 東京: 慶文堂書店, 1902.
大槻修二,『日本地名字引』, 東京: 森屋治兵衛, 1874.
_____,『日本地名字引』, 東京: 大槻修二(版主), 1875.
_____,『日本全圖暗射指南譜』, 東京: 森屋治兵衛, 1875.
_____,『日本地誌要略』1, 東京: 大槻修二, 1875.
_____,『改正日本地誌要略』1, 東京: 柳原喜兵衛, 1886.
師範學校 編輯,『日本地誌略』1-4(1874. 8./1877. 1. 改正), 東京: 文部省, 1874/1877.
_____,『改正日本地誌略』1-4, 東京: 文部省, 1880.
修史局 編,『日本地誌提要』8, 山陰道山陽道部 原稿, [1874].
伊能忠敬 測定, 大學南校 編,『大日本沿海實測録』, 東京: 大學南校, 1870.
正院 地誌課 編,『日本地誌提要』5, 東京: 日報社, 1878.
地誌課 編纂,『日本地誌提要』1, 東京: [內務省]地誌課, 1874.
太政官 正院 地誌課 編,『日本地誌提要 第一稿』1-4, 東京: 同課令写, 1873.

박병섭,「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다케시마=독도 인식」,『독도연구』제3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7, 41-56면.
송휘영,「『죽도문제 100문 100답』의「죽도도해금지령」과「태정관지령」비판」,『독도연구』제16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4, 209-240면.
유미림・최은석,『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윤소영,「일본 메이지 시대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인식」,『독도연구』제1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05, 115-158면.
_____,「근대 일본 관찬 지지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6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363-405면.
_____,「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독도연구』제17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4, 167-200면.
심정보,「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의 고찰」,『독도연구』제23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7, 421-459면.
한철호,「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小學校) 지리교과서의 현(縣)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동북아역사논총』제61호, 동북아역사재단, 2018, 301-343면.

岡田俊裕,『近現代日本地理學思想史—個人史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1992.
_____,『日本地理學史論—個人史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2000.
_____,『地理學史—人物と論争—』, 東京: 古今書院, 2002.
_____,『日本地理學人物事典 近代編1』, 東京: 原書房, 2011.
筧五百里,「大槻文彦博士年譜」,『國語と國文學』第5巻 7号, 東京大學國語國文學會, 1928, 23-38面.

内藤正中・金柄烈,『史的検証竹島・獨島』, 東京: 岩波書店, 2007.
島津俊之,「明治政府の地誌編纂事業と國民國家形成」,『地理學評論』第75巻 第2号, 日本地理學會, 2002, 88-113面.
東京書籍株式會社 社史編集委員會 編,『近代教科書の變遷—東京書籍七十年史—』,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1980.
藤岡謙二郎,「『日本地誌提要』の價値」,『日本地誌提要』全一冊, 東京: 臨川書店, 1982, 1-3面.
文部省,『學制百年史』,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1972.
朴炳渉,「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号, 鳥取看護大學・鳥取短期大學北東アジア文化總合研究所, 2008, 33-49面.
石田龍次郎,「皇國地誌の編纂—その經緯と思想—」,『一橋大學研究年報 社會學研究』第8号, 學術刊行專門委員會, 1966, 1-61面.
石井研堂,「小學讀本の編輯者」,『增補改訂 明治事物起源』上, 東京: 春陽堂書店, 1966, 526-527面.
伊能忠敬研究會 編,『忠敬伊能圖』, 東京: アワ・プラニング, 1998.
中山修一,『近・現代日本における地誌と地理教育の展開』, 廣島: 廣島大學總合地誌研究資料センター, 1997.
仲新,『明治の教育』, 東京: 至文堂, 1967.
中川浩一,『近代地理教育の源流』, 東京: 古今書院, 1978.
織田武雄,『地圖の歷史 日本篇』, 東京: 講談社, 1974.
倉澤剛,『小學校の歷史』, 東京: ジャパン ライブラリー ビューロー, 1963.
川村博忠,「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總合人間科學』第3号, 東亜大學總合人間 文化學部. 2003, 19-24面.
塚本孝,「Q76 江戸時代の文獻では竹島が日本の範圍から除外されているのか.」, 第3期竹島問題研究會編,『竹島問題100問100答』WiLL 3月增刊号, 東京: ワック株式會社, 2014, 176-177面.
海後宗臣 編纂,『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15 地理(1), 東京: 講談社, 1965.
_____,『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17 地理(3), 東京: 講談社, 1966.
海後宗臣・仲新,『近代日本教科書總說 解說篇』, 東京: 講談社, 1969.

下條正男, 實事求是—日韓のトゲ、竹島問題を考える—第22回 「朴炳渉氏の「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を駁す(『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28號)」, Web竹島問題研究所, 2009.8.7.,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takeshima05-d.html(2020.02.05. 검색).

【Abstract】

Meiji Geographer Otsuki Shuji's *Nihon-chishiryaku* (日本地誌略) and His Recognition of Dokdo

Han, Cheol-Ho*

Otsuki Shuji (大槻修二), a Japanese geographer during the Meiji era, published a number of Japanese geography textbooks and student atlases. His *Nihon-chishiryaku* (日本地誌略), initiall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the most successful geography book in this period and adopted by elementary schools, which made it the standard geography textbook of the time in Japan. This paper mainly examines how Otsuki treated Dokdo in this influential book.

During his tenure of office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Otsuki completed his first draft of the *Nihon-chishiryaku* (January 1874) consulting the practically final draft of the *Nihon-chishi-teiyo* (日本地誌提要) compiled by the Chishika (地誌課) under the Daijokan (太政官). Otsuki was aware of the existence of Dokdo and Ulleungdo but did not consider them as belonging to the Oki Islands. Nor did he register them in the *Nihon-chimei-zibiki* (日本地名字引). This is probably because he believed that Dokdo was a dependency of Ulleungdo.

We cannot find Dokdo and Ulleungdo on the maps included in the *Nihon-chishiryaku* such as *Nihonkoku-zenzu* (日本國全圖), *Sanindo-no-zu* (山陰道之圖), *Oki-zu* (隱岐圖). Given that these maps accurately reflected the territorial changes in Japan, that the two islands do not appear on these maps implies that the author did not consider them as Japanese territories. Otsuki did mention Dokdo and Ulleungdo in the text but it was only for explaining the boundaries of the Oki Islands.

Otsuki did not treat Dokdo and Ulleungdo as part of Japan in the *Nihon-zenzu-anshya-shinanhu* (日本全圖暗射指南譜), a book he wrote based on the *Anshya-Nihon-zu* (暗射日本圖) by his brother Humihiko (大槻文彦). While working on the *Nihon-zenzu-anshya-shinanhu*, Otsuki consulted the *Dai-Nihon-enkai-zitsokuroku* (大日本沿海實測録), where Dokdo and Ulleungdo were not

* Professor, Dept. of History Education, Dongguk Univ.

mentioned. Nor did they appear on the *Anshya-Nihon-zu* despite that there was enough space to mark them.

As seen above, Otsuki excluded Dokdo and Ulleungdo from the dominions of Japan in his geography works including the *Nihon-chishiryaku*. What this fact tells us is that neither Otsuki nor the Ministry of Education perceived Dokdo as a Japanese territory.

Keywords: Dokdo (Matsushima), Ulleungdo (Takeshima), Oki (隱岐), Otsuki Shuji (大槻修二), Otsuki Humihiko (大槻文彦), the Ministry of Education (文部省), *Nihon-chishiryaku* (日本地誌略), *Nihon-chishi-teiyo* (日本地誌提要), *Nihon-chimei-zibiki* (日本地名字引), *Nihon-zenzu-anshya-shinanhu* (日本全圖暗射指南譜), *Dai-Nihon-enkai-zitsokuroku* (大日本沿海實測録).

접수일: 2020.03.31.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18.